

“맘껏 꿈꾸고 부딪혔으면”...박정민·이성민·윤아 ‘기적’

6월 개봉...이장훈 감독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후 3년 만
1988년 세워진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양원역’ 모티브

“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내가 처한 현실에 만족하는 게 행복’이란 사회적 분위기도 조성돼 있는데, 영화에서만큼은 마음껏 꿈꾸고 부딪혔으면 좋겠다 싶었죠. 어른들도 아이들이 마음껏 실패할 수 있도록,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오는 6월 개봉을 앞둔 영화 ‘기적’이 어떤 감독과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적’ 제작보고회에는 이장훈 감독을 비롯해 배우 이성민, 박정민, 임윤아, 이수경이 참석했다.

영화는 오갈 수 없는 길은 기차길밖에 없지만 정작 기차역은 없는 마을에 간이역 하나 생기는 게 유일한 인생 목표인 ‘준경’(박정민)과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1988년 세워진 세상에서 제일 작은 기차역 ‘양원역’을 모티브로 삼았다.

박정민이 엉뚱함과 비범함을 갖춘 4차원 수학 전체 ‘준경’ 역을, 무뚝뚝한 준경의 아버지이자 원칙주의 기관사 ‘태운’은 이성민이 맡았다. 또 거침없는 행동파이자 자칭 뮤즈인 ‘라희’는 임윤아가, 준경의 든든한 지원군인 누나 ‘보경’은 이수경이 맡았다.

‘기적’은 이장훈 감독의 전작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후 3년 만의 영화다.

이 감독은 “기차길은 있는데 역이 없는 마을, 나가려면 기차길을 따라 걸어가야 하는 마을에 사는 아이가 기차역을 만들고 싶어서 온갖 애를 쓰면서 자기의 진짜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라며 “영화 후반 작업한 분들이 하나같이 일 못 하겠다고 할 정도로 재미있는 영화”라고 소개했다.

배우들은 출연을 결심한 이유로 시나리오를 꼽았다.

이성민은 “대본 첫 장부터 굉장히 호기심 갖고 읽었던 이야기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따뜻한 이야기라서 이 영화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며 “제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제가 해야 한다는 사명감, 의무감이 들었다. 제 고향 이야기이기도 하다. 제가 실제로 주인공처럼 기차길을 따라 통학했던 학생이라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박정민은 고심하다가 감독이 챙겨준 평소 인형과 우산 등 곳곳에 감동받아 출연을 결심했다고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사실 작품을 하고는 싶었는데 제가 하면 관객들이 공감을 못 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었다. 그런데 감독님 만나고는 그런 게 사라졌다”며 “대화하며 믿음 같은 게 생겼고 촬영이

끝난 지금도 사실 저는 이장훈 감독 다음 영화 하실 때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제가 좋아한다”고 했다.

임윤아는 “기적” 시나리오를 봤을 때 따뜻하고 울컥한 마음이 많이 느껴졌다. 다 읽고 덮자마자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 확정했다. 그만큼 애착이 많이 간다”고 했다.

이수경은 박정민과 ‘찐남매’ 케미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찐남매의 티키타카 같은 장면이 많이 나온다. 부담되는 장면도 있었는데 진심으로 연기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했다.

배우들은 ‘기적’의 배경인 봉하 사투리가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강원도와 경상도의 중간 즈음인데, 억양이 낯달라서 배우들이 애드리브도 치지 못했다고. 이 와중에 임윤아는 이성민으로부터 ‘네이티브’ 같다는 칭찬을 받았다.

이성민은 “그 지역 출신이 봤을 때 윤아씨 사투리는 ‘모태 사투리’였다. 굉장히 잘해서 깜짝 놀랄 정도였다.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으로 평소 듣고 지냈던 것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박정민과 임윤아의 첫 연기 호흡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두 배우는 서로 “정말 좋았다”고 강조했다.

임윤아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고 있던 사이처럼 편했다. 그래서 극 중 모습들이 더 잘 표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웃으며 촬영하고 즐거운 추억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정민은 “일단 윤아씨랑 연기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놀랐고 설렘과 감사했다. 호흡 맞추는 과정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아빠미소 이렇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서 웃으며 촬영했다. 연기적으로 윤아씨한테 부러웠던 부분도 있었다.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살 것 같다”고 반응했다.

이장훈 감독은 영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는 질문에 “어찌보면 꿈을 이루는 것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지는 세상이지 않나. 그

래도 함께 하면 기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고 답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개봉을 미루는 영화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기적’은 후반 작업 끝나기 전부터 개봉 얘기가 나왔다. 아마도 지금이 시기에 가장 적합한 영화라서 그랬던 것 아닐까”라며 “보면서 울고 웃다 하면 극장을 나설 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 영화로 행복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JTBC ‘그림도둑들’ 다음달 12일 첫 방송

세기의 명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 다루는 인포테인먼트 예능프로그램

JTBC 새 예능프로그램 ‘그림도둑들’이 세기의 명화를 탐발하며 한판 대결을 펼친다.

27일 JTBC에 따르면 새 예능 ‘그림도둑들’이 오는 5월12일 오후 10시30분에 첫 방송 된다.

‘그림도둑들’은 세기의 명화 속에 숨겨진 기상천외하고 유익한 이야기를 다루는 인포테인먼트 예능프로그램이다. 출연진은 명화를 훔치는 ‘그림도둑’이 되어 게스트가 주문한 두 개의 작품을 놓고 그 가치와 이야기를 무기로 대결하게 된다.

윤종신, 이해영, 노홍철, 장기하, 조세호, 이이경이 낮에는 연예인, 밤에는 ‘그림도둑들’로 변신한다. 우선 윤종신은 작전 설계자 ‘빠블로 윤’으로 변신해 팀을 이끈다.

이해영은 그림과 사랑에 빠지는 낭만도둑 ‘로미’, 노홍철은 그림 속 스캔들을 털어오는

‘탈빠용’, 장기간 화가의 마음으로 그림을 골라주는 ‘장기에프’, 조세호는 의뢰인 주머니 사정까지 배려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림을 찾아주는 ‘조광’, 이이경은 성공률 100%로 한번 찍은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는 ‘터미네이션’으로 캐릭터를 설정했다.

또 양정무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도슨트 정우철·김찬용 등이 ‘그림도둑들’에 합류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더한다.

이들은 ‘그림도둑들’이 훔쳐온 명화를 전문적이고 깊이 있게 분석하는 것은 물론 그 속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채롭게 펼칠 예정이다.

‘그림도둑들’은 ‘전체관람가’, ‘방구석1열’의 김미연 CP와 ‘한끼줍쇼’, ‘유랑마켓’의 박범준 PD가 공동 연출한다.

정소민·김지석, ‘월간 집’ 설렘 가득...6월16일 첫 방송

JTBC 새 수목드라마 ‘월간 집’이 오는 6월 16일 첫 방송을 확정했다.

‘월간 집’은 집에서 사는(live) 여자와 집을 사는(buy) 남자의 내 집 마련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이날 공개된 티저 포스터에는 정소민과 김지석의 투샷이 담겼다. 따뜻한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는 이 계절, 두 사람을 감싸고 있는 설렘 에너지는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인다.

월간 리빙 잡지 ‘집’의 에디터 ‘나영원’(정소민)과 집사사 대표 ‘유자성’(김지석)이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던 어느 날, 활짝 열린 창문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영원과 그녀를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자성,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 사이에 웬지 모를 두근거림이 담겨 있다.

‘집’에 대한 상반된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지도 궁금증을 부른다.

영원에게 ‘집’(Home)은 온전히 나일 수 있는 공간 반면, 자성에게 ‘집’(House)은 그저 재산증식의 수단이자 잠깐 잠만 자는 곳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소재로 두 사람이 간극을 좁혀가며 완성해 나갈 로맨스는 이 작품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광수, 11년 만에 ‘런닝맨’ 하차...“영원한 멤버”

지난해 교통사고 부상으로 재활 치료 ‘멤버들·제작진과 오랜 논의 끝에 결성’



배우 이광수가 11년 만에 SBS 예능 프로그램

‘런닝맨’에서 하차한다.

이광수의 소속사 킹콩 by 스타쉽은 27일 “배우 이광수씨가 오는 5월24일 녹화를 마지막으로 SBS ‘런닝맨’에서 하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수씨는 지난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꾸준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촬영 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다”며 “이에 사고 이후부터 멤버들과 제작진, 소속사와 긴 논의 끝에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지기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동고동락한 프로그램이기에 하차라는 결정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추후 활동에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며 “그동안 ‘런닝맨’을 통해 이광수씨에게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이광수씨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SBS ‘런닝맨’ 측도 이날 입장을 내고 “‘런닝맨’ 멤버들과 제작진은 이광수씨와 프로그램 하차 관련해 오랜시간 논의를 진행해왔고 이광수씨의 하차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

했다.

이어 “이광수씨는 지난해 교통사고 후 다리 재활 과정을 거치며 최상의 컨디션이 아님에도 ‘런닝맨’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재활 치료와 촬영을 동시에 임했다”며 “하지만 이광수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였고, 이에 대한 고민을 멤버들과 제작진이 함께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멤버들과 제작진은 ‘런닝맨’에서 더 오랜 시간 함께 하고 싶었으나, 이광수씨의 견도 중요한 만큼 장기간의 대화 끝에 그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됐지만, 힘든 결정을 내린 이광수씨와 멤버들에게 시청자들의 따뜻한 응원과 격려 부탁드린다. 멤버들과 제작진 역시 ‘영원한 멤버’ 이광수씨를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런닝맨’은 지난 2010년 7월11일에 첫 방송을 시작한 11년간 이어져온 SBS 장수 대표 예능 프로그램이다. 이광수는 초창기부터 11년간 ‘런닝맨’에서 활약하며 ‘기린’으로 불렸고, 웃음을 안기며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이광수가 다음달 녹화를 끝으로 하차하지만, 후임 멤버 관련 정해진 것은 없다는 것이 SBS 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현 멤버들로 ‘런닝맨’을 이어갈 예정이다.

방탄소년단, 신곡 ‘버터’ 다음달 21일 발매...신나는 서머송

‘다이너마이트’ 이어 두 번째 영어곡

그들 ‘방탄소년단(BTS)’이 다음달 신곡 ‘버터(Butter)’로 돌아온다.

방탄소년단은 27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Weverse)를 통해 새 디지털 싱글 ‘버터’ 발매 소식을 알렸다.

‘버터’는 오는 5월21일 오후 1시에 전 세계 동시에 발매될 예정이다.

‘버터’는 댄스 팝 기반의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에 방탄소년단의 부드러운서도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다.

지난해 8월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Dynamite)’에 이은 두 번째 영어 곡이다.

방탄소년단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제63회 그래미 어워드(GRAMMY AWARDS)에서 후보 입성에 이어 단독 공연을 펼치며 대중음악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바 있다.

최근에는 영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2021 브릿 어워드(The BRIT Awards)’에서 ‘인터내셔널 그룹(International Group)’ 부분의 수상 후보에 올랐다.



SBS ‘펜트하우스3’, 6월 4일 첫방송 확정

‘펜트하우스3’가 오는 6월 4일 시작된다. SBS 제작진은 “‘펜트하우스3’가 6월 4일 첫 방송 편성을 확정 짓고, 매주 금요일 밤 안방극장을 찾아간다”고 전했다.

드라마 ‘펜트하우스3’는 채워질 수 없는 일그리진 욕망으로 집값 1번지, 교육 1번

지에서 벌이는 서스펜스 복수극이다.

파격적인 전개는 물론 기존 출연진에 온주완, 박호산 등 새로운 배우들이 합류하면서 펜트하우스 3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뉴스스